

「해외지방자치제도 비교 견학」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0. 10. 18 ~ 10. 22 (4박5일)
- 방 문 국 : 일 본
- 연 수 단 : 14명(의원10명, 공무원4명)

2010년 11월 일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연수개요

1. 연 수 국 : 일 본

2. 연수배경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원의 자치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항 해결과 개선 방향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10. 10. 18 ~ 10. 22 <4박5일>

4. 보고서 작성자 : 김영호 의원 외 13명

5.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1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호	8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2	“	김상조	9	산업건설위원회	김정미
3	“	김익수	10	“	박주연
4	“	김춘남	11	전문위원	배정미
5	“	박세진	12	직원	박말순
6	“	손홍섭	13	“	강천호
7	“	이명희	14	“	박한기

◁ 목 차 ▷

I. 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2. 연수세부내용

II. 본 론

1. 일본소개
2. 주요업무 수행내용
3. 주요방문지
 - 오사카 이즈미 시립화장장
 - 귀무덤
 - ATC Green Eco Plaza
 - 오오츠시의회
 - 오오츠시청 환경부
 - 히가시오오사카시 가노오 공업단지
 - 링쿠우타운 공업단지

III. 결 론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서 론

□ 연수의 목적

- 전문 연수기관의 위탁연수를 통해 우리시 현안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특히, 우리시의 오랜 해결과제인 화장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나아갈 방향 설정 그리고 오오츠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친선교류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함

□ 연수세부내용

- 기 간 : 2010. 10. 18(월) ~ 10. 22(금) 4박 5일
- 참여인원 : 14명 (의원 10/ 직원 4)
- 세부일정

날 짜	연 수 일 정	비 고
제 1 일 10/18(월)	• 공식일정 : 오사카 이즈미 시립화장장 견학 • 현장시찰 : 오사카시 시장경제 연구조사 및 현장견학 - 산사이바시, 도통보리 견학	간사이 오사카
제 2 일 10/19(화)	• 현장시찰 -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시찰 - 고베 대지진 재해지역 및 복구현장 견학 - 귀무덤 방문	교 토 고 베
제 3 일 10/20(수)	• 공식일정 : ATC Green Eco Plaza 견학 • 현장시찰 : 전통문화의 보전과 관광자원 운용실태 견학 - 동대사	오사카 나라
제 4 일 10/21(목)	• 공식일정 : 오오츠시의회 방문 및 간담회 • 공식일정 : 오오츠시청 환경부	오오츠시
제 5 일 10/22(금)	• 공식일정 : 히가시오오사카시 가노오 공업단지 시찰 • 공식일정 : 오사카 최대의 링쿠우타운 공업단지 시찰	오사카

II. 본 론

□ 일본 소개



일본(일본어: 日本 (にほん、にっぽん) 니혼, 닛폰) 또는 일본국(일본어: 日本國 (にほんこく、にっぽんこく) 니혼코쿠, 닛폰코쿠)은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국가이다. 국토는 일본 열도의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 섬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37만 7835km²인데, 이는 노르웨이보다 작으며, 독일보다 크다. 면적 순으로는 세계 61위이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이 중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의 네 곳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또 일본의 인구는 1억 2,800만명으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다. 또한 수도인 도쿄를 둘러싼 현들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스 형태로 이 지역에만

3,00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947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일본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천황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참의원·중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공존하고 있다. 지금의 천황은 아키히토, 국회의 집권당은 민주당이며, 총리는 간 나오토이다.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은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번째, 구매력 평가 기준도 세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수출이 많으며, 다섯번째로 수입이 많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G8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이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 및 교전권을 포기하였으나, 국토의 방위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간 개발 지수가 8위이며, 삶의 질 지수도 종합 10위인 선진국이다. 또 국제 연합 및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낮고, 매우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 일반 개요 】

- 위 치 : 동북아 극동지방(북위20도 - 46도)
- 면 적 : 377,835km² (한반도의 1.7배)
- 기 후 : 해양성 온화다습, 국토3,300km로 지역별 기후차 심함
- 인 구 : 127,380,000명 (10위)
- 종 교 : 신도(49.4%), 불교(44.7%), 기독교(0.8%)
- 주요도시 : 도쿄(수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 행정단위 : 1都(토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교토), 43縣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현재 125대 아키히토 왕)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1,885년, 1대수상 이등박문, 현재 90대
- 의회제도 : 양원제 (참의원 6년-242명, 중의원 4년-480명)
- 주요정당 : 연립여당(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자유민주당, 공명당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아키히토(명인) 왕
 - 총리대신 : 간 나오토 총리(2010.6.4 취임, 94대)
 - 국회의장 : 중의원(요코미치 다카히로), 참의원(니시오카 다케오)
- 국내총생산 : 4조 1,590불 ('09년, 세계3위)
- 1인 GDP : 32,608불 ('09년, 세계24위)

□ 주요업무 수행내용

- **오사카 이즈미 시립화장장 방문**
 - 시설견학 및 운영실태 조사(질의응답)
- **ATC Green Eco Plaza 방문 및 견학**
 -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관련 담당자 브리핑 및 시설견학
 - 상호관심사 질의응답, 자료수집
- **오오츠시의회 방문 및 간담회**
 - 자매결연 의회 간 교류 및 협력관계 협의
 - 의회행정, 회기운영, 의정활동 방향 등
- **오오츠시청 환경부**
 - 녹색성장관련 담당자 브리핑 청취
 - 오오츠시 환경기본계획 청취
- **히가시오오사카시 가노오 공업단지 시찰**
 - 시설 견학 및 운영실태 조사(질의응답)
- **오사카 최대의 링쿠우타운 공업단지 시찰**
 - 공업단지 담당자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 주 요 방 문 지

◀ 오사카 이즈미 시립화장장 ▶

<시설의 개요에 대해서> 이즈미 묘원(화장터)에 대해서는 원래 1972년에 조업을 시작하고 있어, 현재의 이즈미묘원은 2003년7월1일 개축에 의해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신설후 7년 3개월을 맞이한다. 건물의 면적은 약 3,670㎡, 부지는 약 27,680㎡이다.

화장로는 인체가 9기, 동물이 1기, 기타 뼈를 거두어들임실, 영안실, 대합실 등이 있다. 화장 요금에 관해서는, 시민쪽이 1만엔, 기타가 10만엔, 동물이 2000엔이다. 우리나라도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최대 14배에 가까운 화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에선 비슷한 점이 있었다.



👁 이즈미 시립화장장의 화장로

<화장 건수 및 운영 체제에 대해서> 년간의 화장 건수는, 인체로 약 1,300건, 동물로 약1,600건이다. 운영 인원은 화장 작업원이 5명 (직원 3명, 위탁업자 2명), 사무원이 8명의 로테이션 근무로 운영되고 있다. 평균 배치 인원에는 관해서는, 화장 작업원이 3명, 사무원이 4명이다.

<시설의 특징에 대해서> 당 이즈미 묘원에서는, 유해한 배기 가스를 억제해 무연무취에 의한 최신의 화장 설비의 도입, 또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및 풍력 발전 설비,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광열물비용의 절약, 자원의 유효활용이 의도되는 등, 환경부하의 저감을 목표로 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장례식장 및 묘지의 개요,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이즈미 묘원과 동일하게 2003년 7월 1일에 설치하고, 건물의 면적이 약 2,530㎡로 시설의 주된 내용은 다목적 홀, 집회실, 일본식 방, 찻집 코너 등이 있다. 연간 이용 건수는 약 1,000건이다.

또 당 시설은 시영장례식장으로서도 이용하고 있어 시영장례식의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업자(주)이즈미(和泉) 세레모니(ceremony) 센터)에 위탁하고 있고, 이용 인원수에 따른 각각의 장례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연간 장례식이용 건수는 약 430건이다.

시설묘지 현황은 이즈미(和泉) 묘지와 시노다산(信太山) 묘지 2군데로 이즈미(和泉) 묘지의 면적은 약 7,020㎡, 구획 총수는 약 1,260구획, 1구획당 면적은 1.69㎡, 영대(永代) 사용료는 20만엔이다. 시노다산(信太山) 묘지의 면적은 약 6,330㎡, 구획 총수는 약 1,050구획, 1구획당의 면적은 3㎡ 및 1.5㎡, 영대(永代) 사용료 및 영대(永代) 관리료는 62만2000엔 ~ 31만1000엔이다.

<화장터 건설에 즈음하여 주민대응에 대해서> 묘원을 새롭게 개축해서 계속 운영하는 시설로 1997년에 현지 주민과 협정서를 체결하고, 마을회관 건설, 도로·수로·하수도·공원의 정비 등, 화장터주변의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과의 마찰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넘비현상으로 인해 화장장추진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거의 100%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경우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관계 담당자와의 질의응답과 시설견학 ▷

◀ 귀 무덤 ▶



▲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조상에 대한 애도의 묵념

귀무덤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전공(戰功)의 표식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머리를 베는 대신에 조선 군민(軍民)의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왔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따라 이곳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왜군의 전리품으로 희생된 조선 군민의 수는 12만 6천여명에 이른다. 무덤 위에는 오륜석탑(五輪石塔)이 세워져 있는데 희생된 조선인의 원혼을 누르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석탑은 1643년의 그림지도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무덤이 축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귀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코무덤[鼻塚]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원래는 코무덤이라 불렀으나, 에도시대 초기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그 명칭이 지나치게 야만적이라 하여 귀무덤이라 부르자고 한 뒤로 귀무덤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교토시는 이곳을 이충공원(耳塚公園)으로 조성하였는데, 2003년 3월에 설치한 안내판에 이충과 비충을 병기하고 있다.

일본 교토시 히가시야마구[東山區]에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받드는 토요쿠니신사[豊國神社]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969년 4월 12일 ‘호코지[方廣寺] 석축 및 석탑’의 일부로 일본의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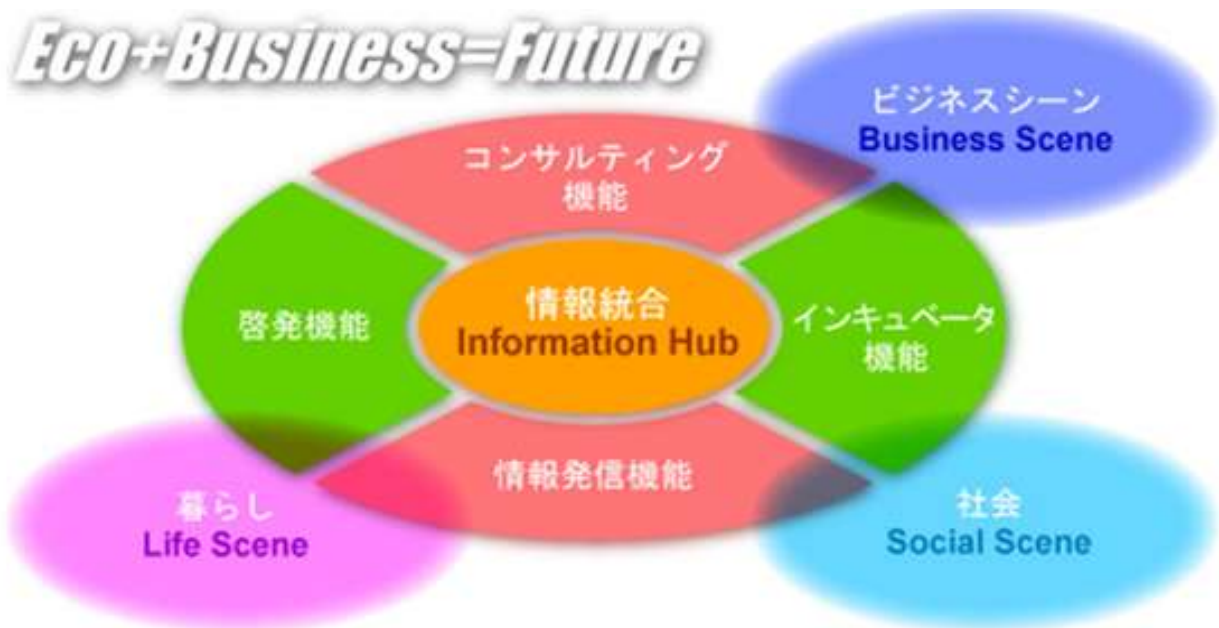
연수단은 당초 연수일정에 없던 장소인 귀무덤을 방문하였고, 연수원 직원으로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잔혹함과 야만성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으며, 일본인에게는 영웅이 되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애국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ATC Green Eco Plaza(오사카환경산업진흥센터) ▶

□ 시설 개요

명 칭	오사카(大阪) 환경산업진흥센터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
설 치 자	오사카시(大阪市)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 주식회사
주 최	오사카(大阪) 환경산업진흥센터 실행위원회 오사카시(大阪市)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 주식회사, 일본 경제 신문사
회 장	ATC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ITM동 11층 서측
소 재 지	오사카시(大阪市) 스미노에구(住之江區) 난코키타(南港北) 2가 1-10
회장면적	4,500m ²
개관 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휴 관 일	월요일 (토·일·축제일도 오픈)
고 문	동지사(同志社) 대학 경제학부 교수 군 시마(島) 다카시(孝)
후 원	경제산업성, 환경성, 국토교통성, 오사카부, 오사카 (大阪)상공회의소 간사이(關西) 경제연합회, 간사이(關西) 경제동우회

□ 시설의 컨셉트





➡ 제일교포인 환경산업진흥센터
부회장으로부터 ATC그린에코
플라자에 대한 설명 청취

대기, 물, 소음, 폐기물,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복잡해지고 시민·기업이나 자치단체에 있어서 발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환경 문제의 대응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설립된 것이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이다. 최신의 환경 비즈니스를 널리 소개하는 것으로 환경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해아리고 지구 온난화문제의 대응이나 순환형 사회만들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 ATC는 연간 900만명의 시민이 모이는 일본 굴지의 고객 유치 시설이며 오사카(大阪)의 부도심으로서 코스모스퀘어 지구의 중심시설이다. 또한 복지를 테마로 한 에이지리스(ageless) 센터나 디자인 진흥 플라자

소프트산업(soft industry) 플라자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진흥을 상의하는 거점 역할도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는 환경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고 시민·기업·행정이 일체가 되어서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이상적인 트라이앵글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에서는 각 기업에 의한 전시나 에코마크(eco mark) 상품 등 친환경적인 제품의 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 세미나나 특별 전시 등의 이벤트도 다수 개최하고 있다.
-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는 환경 비즈니스나 환경·CSR경영의 육성·진흥을 통해서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
- 오사카(大阪)ATC 【그린에코프라자】가 생산·배움·정부·국민·NPO 등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환경·사회문제에 대응해 가는 좋은 “플랫폼(platform)”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에코프라자의 녹색성장 담당자 ‘오히라’상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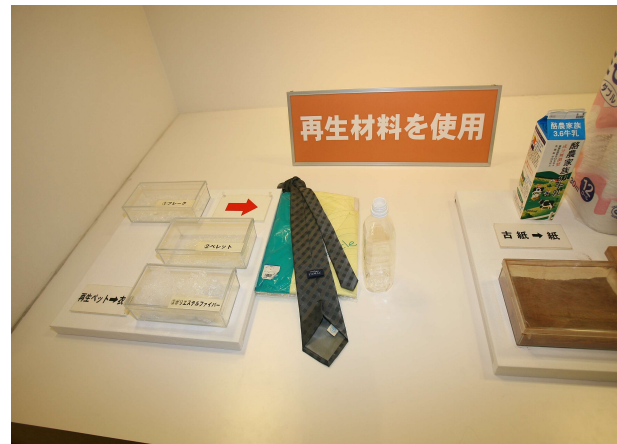
【 ATC 그린 에코 플라자 전시용품 】



▲ 일본의 친환경마크 ▲ 세계의 친환경마크 ▲ 전시용품들...



▲ 전시된 한국의 친환경제품



▲ 피티병으로 만든 친환경넥타이



▲ 우유병으로 만든 친환경 가방



▲ 우유곽으로 만든 친환경 휴지

◀ 오오츠 시의회[大津市議会] ▶



▲ 오오츠 시의회 메카타 마코도 시장, 타케우치 테루오 의장과의 접견장면

오오츠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인구규모에 의해 의원의 상한정수가 정해져, 그 범위내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5월1일 현재 40명이다.

임기는 4년간으로, 현의원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이다.

의장·부의장은, 의원 안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동시에, 의회의 사무에 관한 지시등을 행한다. 또, 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가지 회의나 행사에 출석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돕고 의장이 결여 됐을 때, 병이나 출장 등으로 부재시 의장의 대리를 맡는다.

시의회의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시의회에 대해서 문의 등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주면 된다.

회의 개최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는, 조례로 년 4회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고 있어, 대강 2월, 6월, 9월, 12월에 개최된다. 정례회의 회기는 대강 3주일정도이다. 임시회의는, 그 밖에 필요한 날,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회의이다.



◀ 오오츠시의 본회의장 모습

의원의 발언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과 동일하다.

본회의와 위원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회의장으로 모여서 행하는 회의가 본회의이다.

의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행하여지고, 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의 심사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시의 업무 범위가 넓고, 그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소수인원이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업무능률도 좋고 보다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당 사무실 - 소박하고 검소한 일본인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4개로 시의 일 전체를 크게 4개로 나누고, 관계되는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의장의 자문에 따르는 것 이외에 관계되는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사한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다.

주된 의결 사항으로는

- ◎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것
- ◎ 예산을 정하는 것
- ◎ 결산을 인정하는 것
- ◎ 시세의 부과 징수 또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
- ◎ 조례로 정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것
- ◎ 부시장, 교육위원, 감사위원 등의 선임에 관한 것
- ◎ 그 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각 정례회의 첫날 본회의에서 시장에게서 제출된 의안의 제안 설명이 행하여진다. 후일, 제출된 의안에 대한 질의를 행한 뒤, 그 대부분은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행한다. 이것을 위원회 부탁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가 종료한 뒤, 본회의에서 그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찬성이나 반대인 토론을 행한 뒤 체결한다. 또, 각과 대표질문이나 질의에 맞추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장의 사고방식 등을 묻는 일반질문이 행하여진다.

정례회의 흐름 (定例會)

본회의		⇒	위원회		⇒	본회의	
(1)	개회		(7)	의안설명(議案說明)		(11)	위원장보고
(2)	의안상정		(8)	질의		(12)	토론
(3)	시장의 제안 설명		(9)	토론		(13)	채결
(4)	각과대표질문 (주로 2월 정례회)		(10)	채결(採決)		(14)	폐회
(5)	질의 및 일반질문						
(6)	위원회위임						

◀ 오오츠시청 환경부 ▶

「오오츠시(大津市) 환경기본계획」에 대해 시청 관계자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듣고 오츠시의 환경기본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환경기본계획 책정의 경과보고 -

오오츠시(大津市)는 시가현(滋賀縣)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비와호(琵琶湖)와 초록 깊은 산들에 둘러싸여져 오래 전에는 오오츠(大津) 교토의 수도가 있고

수많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시내각처에 분포되는 등 훌륭한 환경에 혜택을 받은 도시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풍부하고 유구한 역사·문화등의 지역특성을 살린 쾌적한 마을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고 이것을 장래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1995년 9월에 오오츠시(大津市)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1999년 3월에 「오오츠시(大津市) 환경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맞추어 시민, 사업자, 시의 각각이 환경배려정책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오츠시(大津市) 환경배려 지침 【자연지역별·주체별편】」을 책정했다.

「오오츠시(大津市) 환경기본계획」의 개요

오오츠시(大津市)가 안는 환경 문제를 밝히고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 사업자와 시가 손을 잡고,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계획이다.

오오츠시(大津市) 환경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환경 문제의 특징으로 부터 풍요로운 자연과의 공생과 환경의 부하가 적은 순환형의 구조가 가지런해진 도시를 목표로 하고 「공생과 순환의 도시 수도 오오츠(大津) 어린이들이 풍부한 미래를 위해서 ~」를 환경상에 내걸고 있다.

둘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책이 기본시책안(속)에 체계화된 종합적인 계획이다.

셋째, 기본시책에 <시책 추진의 지표>을 마련하고, 시책 추진의 상황을 파악한다.

넷째, 바람직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5개의 중점시책을 마련하고, 각 주체의 협동(協動)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다섯째, 시민·사업자·시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으로 환경배려를 진척시키기 위한 「환경배려 지침」의 책정을 기본계획에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여섯째,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사업자·시 등에서 구성하는 포럼 등을 설치한다.

일곱째, 시의 시책의 책정, 실시에 즈음하여 환경배려 체제의 정비도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여덟째, 계획 책정에 즈음하여 중간답신 및 계획 (안)의 단계에서 출장소 등이나 인터넷등으로 공포해 의견 수렴을 함과 동시에 공모에 의한 의견 발표자도 참가한 「환경계획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널리 시민·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시켰다.

◀ 히가시오오사카시 가노오 공업단지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중순부터 고도 경제 성장에 의해 산업 구조의 근대화·중화학공업화와 인구·산업의 도시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이유로 대기 오염·소음·진동·악취·수질오염 등의 공해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다.

시에도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평이 이어져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1968년부터 생활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기업의 유지·육성을 위해 공장 적지의 집단 이동사업을 계획하여 1969년부터 용지 매수를 시작했다.

사업 방법으로는 시, 히가시 오사카시 토지개발공사 및 재단법인 히가시 오사카시 개발공사가 용지를 취득한 뒤, 공해방지 사업단에 양도하고 공해방지 사업단은 본 업무로서 이동 예정이었던 기업이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히가시 오사카 시에 시설(토지 및 건물)을 양도(원금은 2년 거치 후 13년 또는 18년의 할부상환)하는 방법으로 1972년부터 1991년(완성은 1991년 10월)까지의 사이로 하며 통산 6차에 걸쳐 가노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완성할 때마다 그 협동조합의 명칭으로서 순차적으로 작업 공구단지, 아사히 금속단지, 합동기업단체, 금속단지, 정밀공업단지, 공영기업단지라고 명명해왔다.

각 단지의 사업은 용지 매수와 1971년부터 시작된 히가시 오사카시 계획 사업 중부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체, 이동 예정기업의 사퇴속출, 2번에 걸친 오일쇼크, 지가와 공사비의 폭등, 거품 경제의 붕괴 등의 이유로 완성이 늦어져 사업비가 팽창되어 이동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부담의 경감과 이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1983년부터 이동기업에 대해서 할부상환금에 상정되는 이익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도와왔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1992년 10월 이동기업 64사, 부지면적 약 10.4헥타르, 총 사업비 약 120억엔의 가노공업단지가 완성되었다.

◀ 링쿠타운 공업단지 ▶



◁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관계자의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부현 이름	오사카부		
매물 명칭	린쿠타운 공장 단지 지역		
소재지	이즈미 사노시, 타지리 마을, 센난시		
사업 주체	오사카부 주택마을조성부		
연락처	오사카부 주택마을조성부 타운 추진실 유치분양과 072-460-1316		
엑세스	도로	한신 고속도로 완간 선 이즈미 사노 남쪽 IC에서 6km	
	철도	남해본선, 타르이 역에서 0.5km	
	공항	간사이국제공항에서 12km	
	항만	-	
위치도			

용지에 대한 상세 정보

분양 면적	분양 가능 면적 (ha)		3.1
	최소 분양 구역 면적 (ha)		0.2
	최대 분양 구역 면적 (ha)		-
분양가	60000엔 / m ² ~ 70000엔 / m ²		
입차 여부	허용		
조성 및 분양 현황	분양중인 (분양 가격은 참고 가격)		
위치	전력	고압 : 6600V 특별 고압 : 22000V	
	용수	공업용수도, 상수도	
	배수	공공 하수도	
	지반 지질	지질 : 지질 : 제3종 N 값 : -	
	질	공해 방지 관련 법률 조례의 적용, 현지 공무원과 공해 방지 협정 체결	
입지 가능 업종	제조, 공항 관련 산업 등		
용도 지역 지정	연합 공업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인센티브	세제	사업용 자산매입 외환특례 (공화국), 오사카 산업 집적 촉진세제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의 균일 과세	
	보조금	오사카 기업입지 촉진 보조금 (남쪽지구산업지역), 센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보조금, 이즈미 사노시산업 집 적 촉진조례에 의한 보조금	
	융자제도	오사카산업 입지촉진 융자	
	기타	-	
파티션 그림			

주변지역 정보

쇼핑 센터	이즈미 사노시 : 할인점 <1종> 11, <2종> 21 타지리 마을 : <1종> 1, <2종> 2 센난시 : 할인점 <1종> 4 <2종> 10
초등학교	이즈미 사노시 :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타지리 마을 :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센난시 :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4개교
의료 기관	이즈미 사노시 : 일반병원 12, 일반진료소 72, 치과의원 44 타지리 마을 : 일반병원 1, 일반병원 5, 치과의원 3 센난시 : 일반병원 6, 일반의원 30, 치과병원 21
비고	(용적률) 연합 공업지역 : 300%

일부 기업들의 도산과 낡은 공장건물 등으로 폐허로 변한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승인으로 본격화된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500억원이 투입되며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및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체육시설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39개블록(25만1천19㎡)규모의 집적화 단지에는 금형·IT융복합소재·그린에너지·3D디스플레이 및 광학기기 등 성장 유망산업들이 유치될 경우 관련 업종의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돼 국책사업인 대경권 광역클러스터 발전계획과 맞물려 지역 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오사카의 최대 공업단지인 링쿠타운 및 히가시오오사카시의 가노우 공업단지 시찰을 통하여 현재 1공단에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I. 결 론

- 2010년 제6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뒤로 하고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과 알찬 연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행사가 아닌 KITI(한국지방자치연수원)를 통해 사전 방문지 섭외를 의뢰하는 등 시민의 생각을 헤아리기 위해 연수계획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또한 이번 연수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무게를 두고 우리시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10월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구미시의회 일본 국외연수단은 우리시의 오랜 현안과제인 화장장 건립을 위해 100% 가까운 화장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 연수국을 정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구미시민은 남의 고향, 남의 집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한다. 또한 10배에 가까운 장례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 이번에 방문한 일본 이즈미 시립화장장은 7년전에 건립한 것으로 100%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무연무취 환경조성을 위한 화장로 설비 도입과 함께 다이옥신 등 유해한 배기가스 발생을 방지하는 등, 환경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화장장 설치 당시 여가문화 공간 조성, 복지시설 설치 등 인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울러 화장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장장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장이라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 입지선정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조속한 화장장 건립을 위해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 이에 구미시의회는 더 이상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에게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편의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시에서도 화장장건립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 연수단은 또다른 주요일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ATC Green Aco Plaza와 구미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친선교류 및 협력관계 협의를 위해 오오츠시의회 방문, 그리고 구미시 제1공단에 추진중인 리모델링사업과의 비교시찰을 위해 오사카의 최대 공업단지인 링쿠우타운 및 히가시오오사카시의 가노우공업단지 시찰을 마치고 간사이 공항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해외 자치단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구상과 의회운영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해외연수 방향은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합심하여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가는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구미시의 당면 현안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강행한 이번 일본 연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의 무게를 느끼게 한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 오사카부 주택 마치즈크리부 타운추진실 제공자료
- * 이즈미 영원& 북부 커뮤니티센터 제공자료
오사카 ATC 그린 에코 플라자 현장
- * 중소기업지도센터 히가시(東) 오사카 시 경제부